

세계적 양산지의 환상적인 골프장으로 당신을 초대합니다.

함평 다이내스티 컨트리 클럽

인터넷회원 주중그린피 할인

- 5일전 부킹 1만원 할인
- 3일전 부킹 2만원 할인
- 1일전 부킹 3만원 할인

예약 : www.hpdynasty.co.kr 061)320-7700, 7714



공이 어디로 갈까
공의 궤적을 바라보고 있다.

최경주가 20일 스코틀랜드 커누스티골프링크스에서 열린 브리티시오픈 골프 1라운드 14번홀에서 티샷을 한후 손을 들어 올린채 /로이터=연합뉴스

동국·천수 “이란 킬러는 바로 나”

동국, 아시안컵 이란전 연속골
천수, 올림픽예선 결승골 넣어
내일 밤 8강전 필승전의 다져



‘이란 사냥은 이란 킬러에게 맡겨라’ 이동국(28·미들즈브러)과 이천수(26·울산)가 베이백호의 2007 아시안컵축구 정상 도전에 최대 고비인 이란과 8강전을 앞두고 ‘이란 킬러’의 면모를 제대로 보여주겠다는 각오를 다지고 있다.

19일(한국시간) 밤 늦게 말레이시아에 도착한 태극전사들은 저마다 22일 치러질 이란과 8강전 승리에 대한 전의를 불태우면서 결전의 날이 오기를 손꼽아 기다리고 있다. 23명의 태극전사 모두 똑같은 심정이겠지만 이동국과 이천수는 각오가 남다르다.

이동국은 자타가 공인하는 ‘이란 킬러’이자 중동 전문 사냥꾼이다. 2000년 아시안컵 8강에서 이란을 물리치는 짜릿한 연장전 결승골을 터뜨렸고, 2004년 대회 8강전에서는 비록 3-4로 패해 빛이 바랬지만 팀의 두 번째 골을 터뜨리기도 했다.

베이백호에서 아시안컵 8강전에서 이란과 3회 연속 만나는 선수는 이동국과 이문재(수원) 두 명 뿐일 정도로 이동국은 이란의 수비 패턴에 대해 익숙하다.

이란전 한국팀 예상 선발라인업



이동국이 역대 아시안컵 조별리그에서 골을 못 넣은 것은 이번 대회가 처음이다. 이에 따라 3년 만에 8강에서 이란을 다시 만나게 된 이동국의 골 욕심은 그 어느 때보다 크다.

또 한 명의 빼놓을 수 없는 이란 킬러는 이천수다. 이천수는 2004년 3월 테헤란 원정으로 치러진 올림픽축구 최종예선 2차전에서 발목 부상에도 불구하고, 짜릿한 결승골로 1-0 승리를 이끈 주인공이다. 이천수의 한 방으로 한국은 지긋한 ‘테헤란 원정 징크스’를 깰 뿐 아니라 ‘대한민국이여 일어나라’는 속옷 세리모니를 통해 전 국민에게 웃음을 선사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천수는 지난해 11월 아시안컵 예선 6차전 이란 원정에서 주장 완장을 차고 선발로 나섰지만 0-2로 패하며 쓰린 속을 안고 귀국해야 했다. 이란전 골이 더 필요한 이유가 된 것이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이란 유럽과 총출동 한국 4강 길목 비상

베이백호가 2007 아시안컵축구 본선 4강 진출의 제물로 삼아야 할 이란은 주요 대회에서 7번이나 한국의 발목을 잡아온 만만찮은 상대다.

특히 공격수 바히드 하세미안(하노버96)을 비롯해 미드필더의 주축들인 알리 카리미(바이에른 뮌헨), 자바드 네쿠남(오사수나), 안드라니크 테이무리안(불턴), 메흐디 마다비키아(프랑크푸르트), 그리고 수비수 라흐만 레자예이(리보르노) 등 키 플레이어들이 대부분 유럽에서 뛰고 있을 만큼 개인 기량이 좋고 경험도 풍부해 공략이 결코 쉽지 않다.

유럽파는 일본 J-리그를 포함한 한국의 해외파(5명)보다 많다.

6골 중 네 골을 네쿠남(2골), 테이무리안, 페레이론 잔디(키프로스 아폴론 리마솔) 등 유럽파가 터뜨렸다.

결국 베이백호로서는 이란 유럽파들의 발을 어떻게 묶느냐가 4강 문턱을 넘는데 가장 큰 숙제다.

최경주 ‘뱅크샷’ 폭발

브리티시오픈 첫날... 2언더파 공동 8위

한국인 첫 메이저대회 챔피언 후보로 등장한 최경주(37·나이키골프)의 ‘뱅크샷’이 시즌 세번째 메이저대회인 브리티시오픈골프대회 첫날부터 폭발했다.

최경주는 19일(한국시간) 스코틀랜드 커누스티골프링크스(파71·7천421야드)에서 막을 올린 대회 첫날 1라운드에서 버디 5개와 보기 3개를 묶어 2언더파 69타를 치는 선전을 펼쳤다.

중반까지 단독 선두를 달린 최경주는 선두 세르히오 가르시아(스페인·65타)에 4타 뒤진 공동 8위에 이름을 올렸다.

메이저대회나 다름없는 메모리얼 토너먼트와 AT&T내셔널 등 2개 대회에서 우승을 거두면서 얻은 자신감 덕인지 최경주는 브리티시오픈 사상 최악의 난코스라는 커누스티링크스를 초반부터 거침없이 공략해나갔다. 1번홀(파4)을 버디로 장식하며 상대적으로 경기를 시작한 최경주는 3번(파4), 4번홀(파4) 연속 버디로 순식간에 단독 선두로 올라섰다.

6번홀(파5)에서 두번째샷을 그린 바로 앞에 가져놓은 최경주는 가볍게 1타를 더 줄여 아예 독주 체제로 들어섰다.

7번홀(파4)에서 두번째샷이 그린에 살짝 못 미친 최경주는 퍼터로 굴린 것이 홀을 1m 가량 지나간데 이어 파퍼트가 빗나가 1타를 잃었지만 13번홀(파3)에서 티샷을 컵 1.5m 옆에 떨어트린 뒤 버디를 잡아냈다.

그러나 거의 페어웨이와 그린에서만 볼을 다루던 최경주는 14번홀(파5)부터 흔들렸다. 페어웨이 한 가운데에서 그린을 보고 직접 때린 우드샷이 그린 왼쪽 관공석까지 날아가는 위기를 맞았다.

다행히 관공석에 맞아 튀어나온 볼은 걸러들이 밟아놓아 납작해진 러프에 떨어져 무난하게 세번째 샷을 그린에 올릴 수 있었다.

15번홀(파4)에서 최경주는 두번째샷이 그린에 한참 모자라게 쳐 맞은 위기를 넘기지 못하고 1타를 잃으며 순위표 상단을 지키지 못했다.

‘악마의 발톱’으로 불리는 16~18홀에서 최경주는 16(파3,248야드), 17번홀(파4,461야드)을 무사히 넘어갔으나 18번홀(파4,499야드)에서 두번째 샷을 빙커에 빠트린 뒤 1.2m 파퍼트를 놓치면서 아쉬운 1라운드를 마감했다.

LPGA도 ‘코리안파워’

HSBC챔피언십 1R... 박세리 등 11명 32강 올라

미국여자프로골프(LPGA)투어에서 시즌 세번째 우승 합작에 나선 ‘코리안 시스터스’가 HSBC매치플레이 챔피언십 첫날 32강에 11명이 오르는 위력 시위를 벌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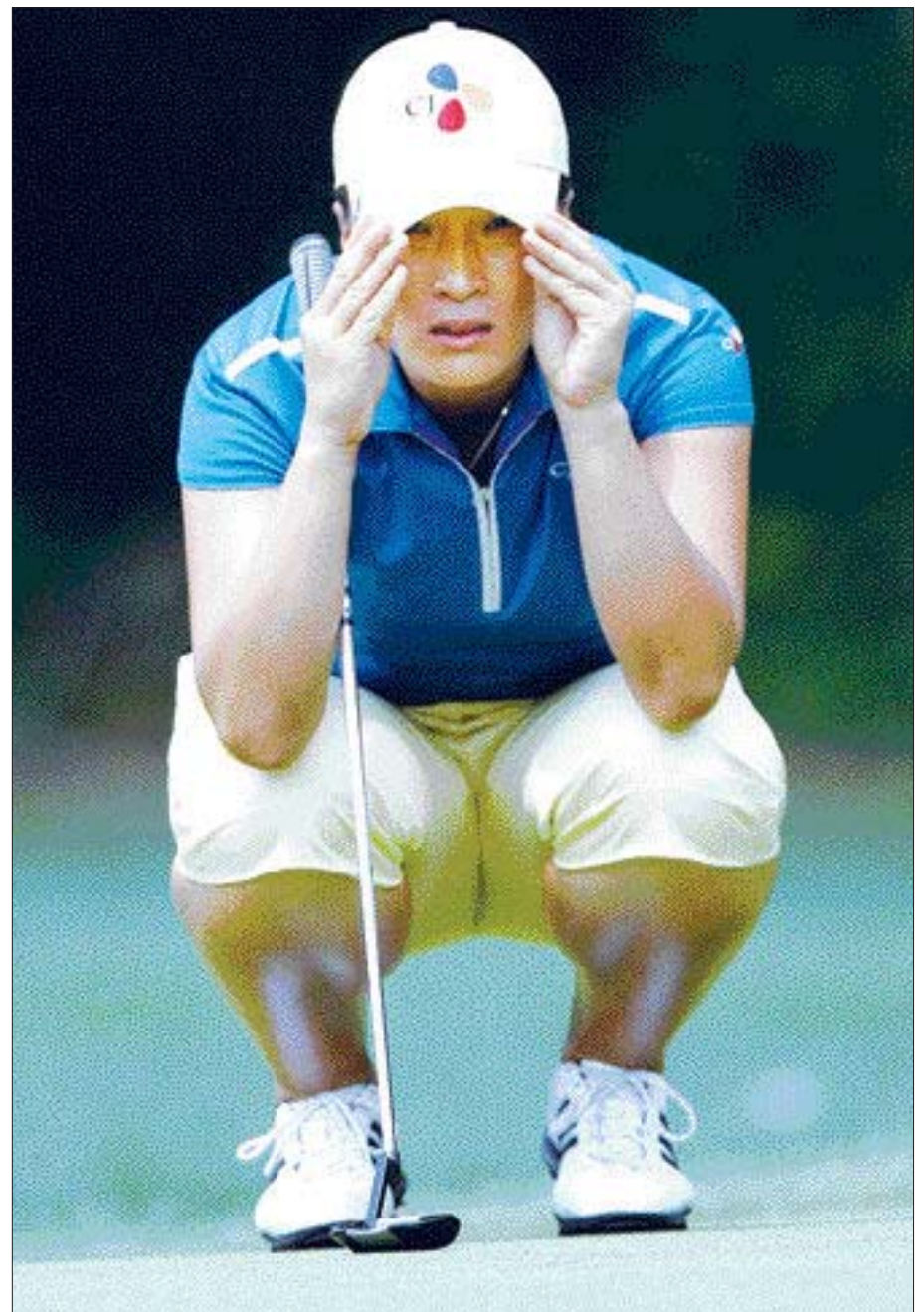
세계랭킹과 상금랭킹 등을 따져 엄선된 64명이 출전한 가운데 20일(한국시간) 뉴욕주 뉴로셸의 와이카길골프장(파71·6천209야드)에서 열린 첫날 1라운드에서 선봉장 박세리(30·CJ)를 비롯해 김미현(30·KTF), 장정(27·기업은행), 김영(27), 김주연(26), 이지영(22·하이마트), 이선화(21·CJ), 최혜정(23·카스코), 이정연(28), 안젤라 박(19), 김초롱(23)이 첫 관문을 넘었다.

64명 가운데 3분의 1에 가까운 21명이 출전한 ‘한국 군단’은 절반이 넘는 선수가 32강 진출에 성공했다.

가파른 상승세를 타고 있는 박세리는 베스 베이더(미국)를 맞아 2홀차로 제압했고 김미현은 안젤라 스탠퍼드(미국)에 5홀차 대승을 거둬 ‘말안나’ 노릇을 토포히 해냈다. 장정은 2005년 이 대회 초대 챔피언에 올랐던 마리아 바에나(콜롬비아)를 3홀차로 눌렀고 안젤라 박은 코로나 챔피언십 우승자 실비아 카바렐리(이탈리아)를 1홀차로 따돌렸다.

박세리는 나탈리 겔비스(미국)를 꺾은 김초롱과 16강 티켓을 다루고 김미현은 이정연을 2라운드에서 만나며 장정도 안젤라 박과 격돌, 16강 자리에 한국 선수 몫이 3개나 줄어드는 것이 다소 아쉽게 됐다.

기대를 모았던 신지애(19·하이마트)는 제니스 무디(스코틀랜드)와 19번홀까지 가는 접전 끝에 무릎을 꿇었다.



퍼팅라인 살피는 세리
박세리가 20일 미국 뉴욕주 와이카길골프장에서 열린 LPGA투어 HSBC매치플레이 챔피언십 1라운드 2번홀 그린에서 퍼팅라인을 신중하게 살피고 있다. /AP=연합뉴스



21일(토)

- ▲2007 메이저리그(탬파베이-뉴욕Y) (07:55·Xports)
- ▲프로야구(한화-삼성)(16:30·KBSN Sports), (두산-LG)(16:50·SBS스포츠), (롯데-SK)(17:00·MBC ESPN)
- ▲아시안컵 8강전(한국-이란)(19:10·KBS2·Xports)
- ▲아시안컵 2007 8강전(22:10·SBS스포츠)

22일(일)

- ▲삼성컵 축구 월드컵(티그레스-수원삼성)(00:30·MBC)

- ▲PGA US뱅크 챔피언십 3R(05:00·SBS스포츠)
- ▲2007 메이저리그(신시내티-플로리다) (07:55·Xports)
- ▲프로야구(한화-삼성)(16:30·KBSN Sports), (두산-LG)(16:50·SBS스포츠), (롯데-SK)(17:00·MBC ESPN)
- ▲아시안컵 8강전(한국-이란)(19:10·KBS2·Xports)
- ▲아시안컵 2007 8강전(22:10·SBS스포츠)
- 23일(월)
- ▲삼성컵 축구 월드컵(티그레스-수원삼성)(00:30·MBC)